



현대차그룹, '해피무브 더 그린' 본격 활동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친환경 리더 육성 프로그램 '해피무브 더 그린'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청년 봉사단 '해피무브'를 환경과 미래 세대에 맞춰 다시 만든 프로그램이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환경 이슈 특강 ▲봉사활동 ▲친환경 랜드마크 탐방 ▲환경 CSR 아이디어 발표 등의 활동을 한다. /현대차그룹



한화-KAIST, '우주의 조약돌' 3기 운영

한화가 KAIST와 손잡고 청소년들의 우주 향을 꿈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Hanwha Space Hub)'는 KAIST와 공동 개발한 우주 교육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최종 합격자 30명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3기 교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됐다. /한화



세정그룹,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호 달성

세정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 중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의 지원 가구가 300호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300번째 지원 대상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홀몸 어르신 가정으로, 곰팡이가 심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노후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세정그룹



중기사랑나눔재단, 장애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장애 청소년 20명과 함께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찾아 문화 관람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봉사자와 장애 청소년이 1대1 매칭을 이뤄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관람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중기사랑나눔재단

대상

청정원, 브랜드고객만족도 3관왕

대상(주)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 '햇살담은'과 장류 전문 브랜드 '순창'이 '2024 제10회 브랜드고객만족도(BCSI)' 시상식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부문 1위를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4년 연속 1위에 선정의 영예를 안은 '햇살담은'은 청정원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최적의 배합·제조 기술인 '씨간장 숙성공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추장, 된장 부문 1위에 오른 '순창'은 뛰어난 맛과 품질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334@

JW중외제약, 유덕종 교수 '성천상' 선정

창업자 성천 이기석 선생 철학 계승 유 교수, 의료불모지서 헌신·희생

JW중외제약은 JW이종호재단이 유덕종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를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지난 2012년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이상은 JW중외제약창업자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JW이종호재단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왔다.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덕종 교수는 의사로서 30여년간 우간다, 에스와티니(에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등 의료 불모지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

유덕종 교수는 1984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198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유 교수는 1992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1기 정부 과전 의사로서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유덕종 교수. /JW중외제약

의료 활동을 펼쳤다.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부속병원인 몰라고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유덕종 교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항생제, 수액 등 약품은 물론, 혈압계와 체온계 같은 기본 진단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낙후된 병원에서 유 교수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겪은 유 교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오랜 노력 끝에 그는 2002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

을 개원했다. 이후 난민촌과 빅토리아호수내 섬 지역 등을 방문하며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유 교수는 2005년에는 몰라고병원에 호흡기내과를 창설해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진 양성에도 힘썼다. 유 교수는 우간다에서 지낸 23년 동안 현지 의대생과 내과 전공의들을 교육해 2000여 명의 의사와 100여 명의 내과 의사를 배출했다. 유 교수의 제자들은 우간다 의학계 전반에서 활약하며 보건부장·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에티오피아 짐마에 위치한 짐마대학병원에서 8년간 근무하며 환자 치료와 의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병동에 기관지 내시경 진료를 도입했다. 환자들이 350km 떨어진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 교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호흡기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의료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24 JW성천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ce236@metroseoul.co.kr

곽재원 진에어 기장 응급환자 생명 구해

진에어 소속 한 승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를 구했다.

22일 진에어에 따르면 진에어 운항승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지난 6월28일 경기도 광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동 후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옆 코트에 있던 진에어 곽재원 기장은 곧바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조치에도 의식이 바로 돌아오지 않았고, 곽기장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 사람과 함께 흉부 압박과 인공 호흡을 했다.

곽기장은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환자를 인계했으며, A씨는 의식을 회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실은 이달 16일 A씨의 배우자가 진에어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는 "병원에서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매우 위험했으며 적절한 초기 대처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곽재원 기장은 "평소 회사의 안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었다"며 "덕분에 실제 상황을 보자마자 주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대성 기자 iunmids@

현대차, 'TCR 월드투어' 4라운드 우승

올해 두번째 포디움 정상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올해 두 번째 포디움 정상에 올라섰다.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투어링카 대회인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버트 미첼리츠 드라이버와 함께 출전한 더 뉴 엘란트라 N TCR은 19~2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인터라고스 서킷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가 아닌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가 7월 19~21일 열린 '2024 TCR 월드투어'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기뻐하는 모습

제조사에 경주차를 구매해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대회로,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레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짓는다.

현대차 경주차가 올해 TCR 월드투어 지역 레이스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첼리츠 선수는 이번 레이스 우승으로 총 30포인트를 획득해 2024 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스코나 선수도 총 22포인트로 5위에 올랐다. 두 선수가 속한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 팀은 총 383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팀 바텐베르크 상무는 "TCR 월드투어 개막전인 이탈리아 레이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 레이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엘란트라 N TCR 경주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크계 대부' 김민기 前 학전 대표 별세

포크계 대부 김민기 전 학전 대표(사진)가 지병인 위암 투병으로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73.

김 대표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기중·고 시절 미술반 활동을 했고, 1969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 수업이 잘 맞지 않았던 그는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든다.

1970년 명동 '청개구리의집'에서 공연을 했고 이 당시 그의 대표곡



'아침 이슬'이 세상에 나왔다. 초창기 건전가요로 지정된 '건전가요서 울시문화상'을 받게 된다. 1972년

'10월 유신' 때 가수 양희은이 '아침 이슬'을 불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뒤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다. 추후 민주항쟁에서 군중들이 함께 부르는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기도 했다.

김민기는 1991년 학전(學田)을 개관하면서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재를 발굴한 한국 공연 문화의 산실로 평가받는다. 수많은 포크송 스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김광석, 여형스캐치, 박학기, 윤도현, 장필순, 권진원, 김형석 등이 이곳 무대에 섰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미영 씨와 슬하 2남이 있다. 조의금과 조화는 고인의 뜻에 따라 받지 않는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조명우 인하대 총장 플라스틱 저감 동참

인하대학교는 조명우 총장(사진)이 22일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릴레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일상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과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했다.

조명우 총장은 김성찬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추천했다.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는 환경보호, 친환경 정책이 적극 동참하는 등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대학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 ◆특허청 ◇과장 승진 △기계전자상표 심사팀장 강군상
-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청장비서관 김원태
- ◆동양생명 ◇임원(상무보) 승진 △최고위기관리자(CRO) 문일